

「新聞記事에서 小說까지 : 胡仿蘭 事件 分析」에 관한 질의문

심혜영*

1. 하 교수의 이 글은 만청시기(1907년, 광서 33년) 강소성 술양현이라는 한 외진 마을에서 일어났던 ‘가정비극’(후팡란이라는 한 여인이 전족을 풀고 여학당에 입학하려는 의지 때문에 시부모의 핍박을 받고 마침내 독약을 받고 죽게 되는 사건)이 만청사회라는 특수한 시공간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힘들의 작용을 통해서 공론화(뉴스를 통해) 되고, 작품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형을 겪게 되었는가를 밝혀 주고 있다.

2. 하 교수에 의하면 후팡란의 죽음은 한편으로 군주와 아버지가 신하와 자식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구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은폐되어버린 수많은 유사한 사건들 속에서 떠올라 만인의 주목을 받고 공개적인 평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인 뉴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사회의 힘에 저항하는 또 다른 힘의 존재를 통해서였다. 그 다른 힘이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된 시대사조’와 ‘빠른 전파력을 가진 매체’ 그리고 새로운 사조의 유입과 전파를 통해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개량파’의 역할, 광범한 독자층의 존재 등을 통해 나타나는 힘이다.

* 성결대 교수

하 교수의 이 글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후광란의 사건이 뉴스화되고,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만청사회 내부에서 작용하는 친구세력의 역학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또한 그러한 역학관계가 사건의 개체적 진실을 변형시켜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하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발신자의 신분과 전략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후광란의 사인을 ‘전족을 쫓 것’으로 몰아가면서 그것을 여학당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마련의 방편으로 삼고자 했던 강남교육총회의 입장이나, 독자층의 수용능력과 취향을 고려하여, 후광란을 신사상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진인물’에서 친구의 미덕을 겸비한 ‘중용의 인물’로 변형시킨 통속소설작가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3. 하 교수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후광란이라는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이 당시 개량파의 사회변혁실천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하 교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하 교수도 지적하고있는 것처럼 후광란의 죽음은 개량운동세력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 동기는 다분히 전략적인 것이었다. 개량운동세력이 이 사건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 여성의 비극적 죽음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반전통의 계몽전략 속에서 가지는 도구적 가치였던 것은 아닌가? 적어도 후광란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만을 놓고 보면 구 지배계급과 새로운 세력간의 차이란 전자가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기득권 수호를 위해 개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한 데 비해 새로운 세력은 구 지배계급에 타격을 가하고 계몽이데올로기를 선전하며 새로운 권력 쟁취를 위해 개체적 진실을 이용한다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둘째는 첫 번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하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란 어떤 것이며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페미니즘 논의의 주류는 근대성 비판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 교수의 페미니즘은 어

떤 관점에 선 것인가?

셋째는 개혁 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중국에서 여성의 문제는 어떠한 구도와 관점 속에서 취급되었으며, 개혁 개방 이후에 그것은 또한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근대화화의 경로를 밟아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사회에서의 여성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학회의 한국측 참석자들을 위해 이 점을 질문하고 싶다.

今天我很高興，能够參加這次學術會議當討論者向夏教授請教。

夏教授的這篇文章給我們介紹晚清時期在江蘇省沐陽縣一個村里發生過的‘家庭悲劇’。夏教授通過這個事件揭示晚清社會文化的特殊情況—社會思潮和變革實踐的具體面貌。夏教授認為借助互相矛盾而互相依存的新舊力量的作用，這個‘舊時家庭中并不罕見的悲劇’能成為‘公眾關注的大事件’了。胡氏的死一方面是‘君，父握有決定臣子生死的大權’的封建意識形態的一種很自然的表現，可是另一方面却是‘中國歷史進入二十世紀初三千年來未有之大變局出現’的新的條件的反映，（即是難以抵抗的時代風潮，媒體快捷的訊息傳遞功能，已經形成新的社會力量的改良派人士，廣範的讀者接受層的存在。）

夏教授給我們揭示的內容中特別讓人感到興趣的是胡氏的死在整個事件報道的過程中，也在成為通俗小說作品的過程中不得不要受到變形和改造的事實。從這個事實我們可以看到在晚清社會裏起作用的新舊力量互相對抗而互相依存的具體情況。夏教授指出這就是‘由于發言者各自身分與策略的差異’。通過揭出此事而形成輿論導向，以發揮民間社團的監督功能的方式始終積極介入的江南教育總會為了達到‘以放足爭勵學’的目的，故意偏重以胡氏解去纏足為致死主因。把胡氏的故事寫成小說的通俗小說作家考慮到當時讀者層的意識水平和接受能力的限制，把模倣胡氏的小說主人公的形象有意加以改造，其結果胡氏的形象‘變先進為中庸’了。

根據以上的念讀，我想向夏教授提幾個問題。

第一，胡芳蘭的死對當時改良派的整個社會變革企圖中所占的意義是什麼？夏教授對他們的立場有什麼看法？如夏教授指出，胡氏的死被改良派的積極介入才能公開而成爲衆人注目的大事件，可是改良派的這種行爲從根本動機上來看是出于策略性的考慮來的。改良派對胡氏事件的主要關心不是在于指示一個女人的悲劇性的死裏面所包含着的真實，而是在于那個事件作爲推動社會改革的工具性價值。這樣看來新舊之間的差異只不過是在于舊統治階級爲了維持舊社會秩序隱蔽個人的真實，改良派爲了宣傳啓蒙意識形態利用個人的真實巴了。

第二個問題是跟第一個有直接的關係的。對女性問題或者女性主義夏教授有什麼看法？這種看法的理論根據是什麼？譬如說在韓國社會進行着的女性主義談論一般是站在現代性批判的立場上的。夏教授對這個問題堅持什麼觀點？

第三個問題是改革開放以前的社會主義中國對女性問題堅持什麼觀點？改革開放以後這種看法有什麼變化？中國跟韓國經過了不同的現代化的途徑，因此對女性問題的看法可能也有不少不同的地方。爲了對中國社會女性問題有不少關心的韓國學者，學生們請簡單介紹一下。